"농업정책 만들기 민관협치"

익산시·농업회의소, 농정협의회 갖고 협력방안 논의

농업예산 확대·농민단체 활성화 등 총 18개 안건 선정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7일 북부청사 다목적 강당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농업회의소와 함께 농정협의회를 갖고, 농업회의소에서 제안한 정책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김선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익산시장, 명예농업시장, 미래농정국,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과, 도로과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농업회의소는 작년 3월 창립 이후 읍면동 분회, 분과위원회 등을 조직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농업인들과 꾸준히 소통해왔으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농업회의소 창립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회원, 대의원 등의 다수인원의 모임을 간소화하고 서면·현장 방문을 통해서 농업 정책 및 건의사항 등 농업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번 농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안건은 분과위원회, 농민단체, 이사회 등 회의를 거쳐 18개의 안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주요한 제안 안건으로는 ▲농업예산의 확대, ▲농민단체 활성화 지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개최,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정책영역 확대, ▲일부 농업보조사업의 확대 및 개선 등이다.

시는 이날 협의된 안건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의 농정 파트너인 익산시 농업회의소와 농업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함께 만들면서 진정한 민관 협치를 이뤄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농촌을 위한 다수의 좋은 정책을 제안받아 시책 및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농협, 유관단체 등 농업분야가 모두 참여가 가능한 농업계 대표기구로서 농업인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농정 참여, 농업 자문, 조사연구, 교육 훈련, 농업 홍보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그 동안 행정 주도의 하향식 구조를 지양하고 현장의 농업인이 직접 참여(기획, 실행, 평가, 책임)하는 상향식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 간담, 분과위원회 활성화, 읍면동 농업회의소(읍면동분회) 설립 등 농정수렴 체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및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출격

용역 최종보고회… 3개 분야 10개 추진과제 발굴

익산시는 지난 7일 익산시 북부청사 다목적강당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정명채 명예농업시장, 행정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14명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한민국 농촌활력 증진모델 구축'을 목표로 3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침체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 세부사업 구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기점으로 ▲마을전자상거래, ▲농촌활력아카데미운영 ▲시골여행 활성화 등 분야별 세부사업 수립 계획을 구체화하여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단위 상품 및 특정 지역을 넘어 고령농·중소농·영세농에 이르기까지 관내 모든 농민과 농촌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행정지원 의존도를 낮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익산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만큼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익산의 모든 농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전국적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서 2019년 선정되었으며, 4년 동안 국비 4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자해 익산시 농업과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7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코로나 확진자 1명 고발조치

거짓 진술로 행정력 낭비

군산시가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코로나19확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지난 4일 사법기관에 고발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 11번째 확진자 S씨는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확진자(성북구53번)의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군산시로 이관돼 16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S씨에 대해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7일 오전 2시 35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1시간 동안 역학조사를 거짓으로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

시는 S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및 S씨 동선확인 CCTV 및 GPS 위치추적 결과 확인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제1항 위반에 따라 고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한경봉기자

추석명절 군산시 추모관 총량 예약제 운영

14일부터 추모객 분산 유도

온라인추모서비스 시행

군산시 공설 봉안당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올 추석명절은 비대면 추모를 권장하고 오는 10월 11일까지 유품 비치목적의 안치단 개방과 제례단 사용을 제한한다.

군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추모관 총량예약제 운영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선다.

군산시 공설 봉안당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올 추석명절은 비대면 추모를 권장하고 오는 14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유품 비치목적의 안치단 개방과 제례단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장유골 봉안, 삼우제, 사십구재는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추석명절기간 중 추모객 분산 유도를 위해 총량 예약제 운영과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시행한다.

온라인 추모서비스의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날부터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량 예약제운영은 하루 500명 이내로 오는 21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추모객이 급증하면 실내 밀집도가 높아져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추모관 방문 시에는 방명록 작성 및 발열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후 추모하며, 최소 인원 가족단위 중심으로 간소하게, 다른 유가족 간 거리는 최소 2m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오신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추모관 방문 시 위험성이 높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가급적이면 추석명절 기간 중 추모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민의 장, 임귀성·나용일·엄문정·고진곤·김정혁씨 선정

군산시는 지역의 발전과 위상을 위해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군산시민의 장에 5개 분야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공고, 접수, 공적 현지조사,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4일 최종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문화예술체육장에 임귀성, 애향봉사장에 나용일, 산업장에 엄문정, 노동장에 고진곤, 교육장에 김정혁 후보가 각각 선정됐다.

지금까지 군산시민의 장은 지난 1968년부터 시상을 시작해 2020년까지 총 27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시는 "오는 25일 제58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의 장을 시상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내실 있는 시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기자

지역 소식통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무장애관광환경 조사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은 7일부터 2020년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역 인근 사업장(카페업, 음식업, 기타업 등)을 대상으로 무장애관광환경 조사에 나선다.

무장애관광환경이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포함 모든 사람들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다. 무장애관광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과 노인 인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점차 늘어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익산시는 장애인시설이 잘 갖춰진 철도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이에 무장애관광정보를 포함한 환경 조성이 잘 된다면 남녀노소·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여행하는 무장애관광지 익산이 될 것이다.

2019년 서울시 관광약자 관광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44%의 관광약자는 '정보부족'으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300세대 공급

익산시가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1,300세대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건설 중인 임대주택은 3개 단지 682세대이며, 민간 및 공공에서 계획 중인 임대주택은 7개 단지 4,239세대이다. 이를 통해 익산시에는 금후 5년간 임대주택 총 10개 단지 4,921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 중 1,300세대를 청년, 신혼부부 등에 주변 임대시세의 70 ~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특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소형평수(15평 이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법적 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특별공급을 확대하도록 사업자에 권고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기자